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과 결혼의 위기와의 상관성

— 데이빗 R. 셜웨이의 『현대적 사랑: 로맨스, 친밀성
그리고 결혼의 위기』를 중심으로

이정옥*

1. 서론
2. 결혼의 위기가 불러온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
3.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의 공존과 교차
4. 개인화과정의 양면성과 '현대적 사랑' 연구의 의의와 한계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데이빗 R. 셜웨이의 『현대적 사랑』(2003)을 중심으로,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과 결혼의 위기와의 상관성에 기초하여 20세기 현대적 사랑의 전개양상을 고찰하고, 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구했다. 이 책은 텍스트 분석 중심의 로맨스연구와 로맨스의 구조변동에 관한 문화사회학 이론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방법론을 토대로, 20세기 사랑과 관계에 관한 문화텍스트의 지형을 개괄한 연구서이다.

셜웨이는 결혼의 위기가 불러온 20세기의 로맨스와 친밀성 담론의 구조변동을 고찰하기 위해, 푸코와 기든스, 루만 등의 사회학이론을 원용하여 자신만의 연구방법론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로맨스와 친밀성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의 담론이 텍스트로 구현된 서사를 각각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라 규정한 다음, 20세기의 현대적 사랑이 전개되는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조감했다. 20세기 초 데이트라는 새로운 연애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연애지침서나 스크루볼 코미디와 같은 관계이야기가 등장했지만, 낭만적 사랑의 로맨스를 지향하는 할리우드 고전로맨스와 같은 사랑이야기가 주류를 이뤘다. 반면 196,70년대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의 여파로 20세기 후반에는 관계영화와 결혼소설 등과 같은 관계이야기가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이분법적 분석은 20세기 현대적 사랑의 지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장점을 지니지만, 2차 개인화과정이 안겨준 위험과 해방이라는 양면성을 외면함으로써 20세기 후반 친밀관계의 실상을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근대적인 결혼제도가 와해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낭만적 사랑의 로맨스가 약화되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친밀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친밀성 연구도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친밀공동체나 건강한 친밀성과 공공성의 교차지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맥락에서 셴웨이의 연구는 로맨스와 친밀성의 연구가 나아가 할 방향을 선도했다는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로맨스, 친밀성, 결혼의 위기, 현대적 사랑, 담론의 구조변동, 사랑이야기, 관계이야기, 개인화과정)

1. 서론

로맨스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천생연분의 운명적인 단짝을 만나 파란만장한 연애과정을 거쳐 결혼으로 끝을 맺는 동화 같은 로맨스의 전형

적인 서사문법은 오래 전에 무너졌다. 더불어 사랑과 연애에 헌신하는 수동적인 여자주인공도 자기주도적인 여성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 일련의 과정은 그간 표준화된 사랑의 문화각본으로 대중서사의 흐름을 주도해왔던 로맨스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입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

로맨스 이론가들에 따르면, 이런 추세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로맨스의 서사방식이 탈바꿈하는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은 로맨스를 사랑에 대한 환상으로서의 로맨스(romance)와 장르로서의 로맨스(the romance)라는 두 층위로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 전자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독특한 사랑의 방정식을 인간보편적인 욕망이자 사회질서를 초월하려는 환상적 상상력으로서, 중세 이래 오늘날까지 문학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현실세계에 숨어 있는 꿈과 환상을 구현하는 문학의 한 요소로서의 로맨스가 구체적으로 구현된 텍스트이자, 시대적 맥락과 사회문화의 변동에 따라 변용과 변주를 거듭하는 서사양식으로 정의된다.¹⁾

이처럼 로맨스를 두 층위로 나누게 된 배경은 이안 와트의 『소설의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와트의 소설발생론은 18세기 영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형식의 문학을 소설(novel)이라 칭하고, 영국적 자본주의에 특화된 형식적 리얼리즘소설을 ‘소설(the novel)’로 특정했다. 19세기 말까지 영국에서 소설을 로맨스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디포우 등을 비롯한 18세기 영국 남성작가들의 소설작품(the novel)을 소설(novel)의 기원으로 정립함으로써 20세기의 문학이론과 문학연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²⁾ 그러나 소설발생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1) 대표적으로 1957년에 발간된 질리안 비어의 『로망스』(문우상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가 있다.

2) 이안 와트의 소설발생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대두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주로 영국소설이 뒤늦게 등장했다는 콤플렉스를 떨쳐버리고 서구소설의 기원을 18세기

영국 근대소설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로맨스의 전통을 타자화한 전략을 감행했다는 데 있다. 소설(novel)이 현실세계에 대한 묘사와 해석에 몰두하는 반면, 로맨스(romance)는 현실세계에 숨겨진 꿈과 환상을 밝혀내는데 전념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로맨스와 소설의 연속성을 단절시켰던 것이다.

이런 흐름에 반발한 로맨스 이론가들은 사랑에 대한 환상으로서의 로맨스와 장르로서의 로맨스 개념을 토대로 12세기에 발생한 중세 로맨스가 역사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변용과 변주를 거듭해왔던 끈질긴 생명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낭만적 사랑을 이상화하는 사랑에 대한 환상으로서의 로맨스는 여전히 건재할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사회질서와 관습적 규범에 맞서는 사랑의 신화로서 굳건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³⁾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로맨스 장르(the romance)가 사랑을 향한 환상으로서의 로맨스(romance)를 인간 본연의 영원한 속성이자 이상적 경험으로 강화시키고, 그렇게 강화된 로맨스가 다시 로맨스 장르로 수렴되는 순환구조에 매몰되는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 그 결과 사랑과 결혼 사이의 연관성에 밀착된 로맨스 장르의 사서문법이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제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여기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1980년대 초반 재니스 A. 레드웨이의 『로맨스 읽기: 여

영국에 두려는 국수주의적 의도였다는 점과 17세기에 대거 등장한 여성작가를 배제하고 소설발생의 주도권을 남성작가에 부여했다는 점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서는 김봉률, 『이안 와트의 소설발생론과 장르 정치학』, 동인, 2007과 낸시 암스트롱, 『소설의 정치사: 섹슈얼리티, 젠더 소설』, 오봉희·이명호 옮김, 그린비, 2020을 참조할 것.

3) 대표적인 예로 드니 드 루즈몽, 『사랑과 서구 문명』, 정장진 옮김, 한국문화사, 2013과 Karen Sullivan, *The Danger of Romance: Truth, Fantasy, and Arthurian Fic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등이 있다.

성, 가부장제와 대중문학』을 둘러싼 로맨스논쟁을 들 수 있다. 레드웨이
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할리퀸로맨스의 독서
실태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 로맨스 장르의 서사문법을 정리함으로써,
로맨스의 문학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로맨스에 대한 학문적 논쟁을 점화
시켰다는 점에서 크게 호평을 받았다. 그럼에도 로맨스 장르와 독자들
의 보상심리의 순환성에 천착한 텍스트 중심의 문학연구에 편중되어,
여성이 처한 사회문화적 현실과의 관련성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에 휩싸
이며 페미니즘 논쟁을 촉발시켰다.⁴⁾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순환구조에서
벗어나 로맨스를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짓는 연구가 이뤄졌다. 특히
앤서니 기든스는 성혁명과 더불어 결혼의 위기와 가족제도의 붕괴가 본
격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낭만적 사랑이 와
해됐고, 이에 따라 로맨스가 심리적 안전의 한 형태이자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잠재적 통로로의 구조변동이 일어나면서 친밀성의 구조 역시
급격하게 변동했다고 진단했다.⁵⁾

또한 니콜라스 루만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소
통매체로 다루는 사회체계론을 펼치며, 사랑의 의미론 변화와 사회구조
변동의 긴밀한 연관성에 주목했다. 특히 계층적 사회에서 기능적 사회
로 분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개별 인격의 모든 속성들이 중요해지고 개
인들 간의 상호침투가 이루어지는 친밀한 관계가 중시되는 사회구조 변

4) Janice A. Radway,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9; 이정옥, 『로맨스, 여성, 가부장제의 함수관계
에 대한 독자반응비평: 제니스 A. 레드웨이의 『로맨스 읽기: 여성, 가부장제와 대중
문학』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5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9, 349-383쪽.

5)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황정
미 옮김, 새물결, 2003, 89-112쪽.

동으로 인해 그간 결혼과 사랑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던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이 변화됐다고 설명했다.⁶⁾

기든스와 루만의 성과는 로맨스연구에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가져왔다. 먼저, 로맨스의 서사문법과 독자심리의 순환구조에 매몰됐던 텍스트 중심적 문학연구에서 벗어나 사랑의 욕망과 친밀성의 코드화에 초점을 맞춘 언어심리학적 연구가 급부상했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친밀성에 대한 임의적인 정의를 토대로 섹슈얼리티나 로맨스와 관련된 욕망의 코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할 뿐 아니라, 여전히 텍스트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⁷⁾

이와 달리 데이빗 R. 셜웨이의 『현대적 사랑: 로맨스, 친밀성, 그리고 결혼의 위기』(2003)는 1980년대의 텍스트 중심적인 로맨스연구와 1990년대의 문화사회학적 연구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방법론을 고안하고, 이를 텍스트 분석에 충실히 적용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영문학과 대중문화를 강의해온 셜웨이 교수는 20세기 초반부터 일기 시작한 결혼의 위기가 몰고 온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 변동을 조명하고, 영화와 소설 뿐 아니라 조언서와 심리치료 매뉴얼 등의 문화텍스트를 중심으로 로맨스와 친밀성의 담론이 직조·유통되는 방식을 분석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셜웨이가 밝힌 로

6)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옮김, 새물결, 2009, 229-258쪽; 김미경, 『친밀성의 구조변동과 가족구조의 변화: 바우만의 문제의식과 루만의 인식론을 통한 접근』, 『젠더와 문화』 제10권 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7, 79-86쪽.

7) 대표적으로 Keith Harvey & Celia Shalom, *Language and Desire: Encoding sex, romance and intima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과 비비아나 A. 젤라이저의 『친밀성의 거래』,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옮김, 에코리브르, 2009가 있다.

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과 결혼의 위기와의 상관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논하기 위해 셜웨이가 정립한 이론의 도출과정을 일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혼의 위기와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로맨스담론과 친밀성담론이 텍스트로 구현된 서사를 각각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로 규정하고, 영화와 소설, 조언서와 심리치료 매뉴얼 등의 문화텍스트를 대상으로 두 가지 서사가 공존·교차하는 양상에 대한 셜웨이의 분석을 논구할 것이다. 나아가 4장에서는 사랑과 결혼의 위기가 초래된 근본 원인에 해당하는 2차 개인화과정의 양면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적 사랑'에 관한 셜웨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2. 결혼의 위기가 불러온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

데이빗 R. 셜웨이는 20세기의 독특한 사랑이 로맨스와 친밀성의 급격한 구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포착하고, 그 구체적인 전개양상과 특성 등을 총괄하여 '현대적 사랑'이라 명명했다. 나아가 결혼의 위기,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 그리고 현대적 사랑의 상관성을 고찰하기 위해 사회학자들의 이론을 원용하여 자신만의 연구방법론을 구축했다. 가장 먼저 로맨스와 친밀성이 더 큰 사회적 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푸코의 담론 개념에 기대어 로맨스와 친밀성을 '담론'으로 규정한 다음, 기든스가 주창한 친밀성의 구조변동론과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결합하여 로맨스와 친밀성이 공존·교차하는 양상을 분석했다.

섬웨이는 큰 틀에서 이성이 인간생활의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을 배제함으로써 현대성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에 동의하며, 주체를 역사와 사회의 특수한 담론에 의해 생산되는 구성물로 정의한 푸코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감시의 증대와 규율권력의 확산에 초점 맞춰 이를 설명한 푸코에 반발하며, 계몽의 유산이 철저히 배제해 왔던 사적인 감정 즉 친밀성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회심리적인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로맨스에 관한 전통적인 담론의 변화를 포착한 기든스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기든스는 20세기에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낭만적 사랑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친밀성의 급격한 구조변동의 징후를 발견하고, 결혼제도와 긴밀히 연결돼 있던 19세기의 낭만적 사랑이 생계 부양자로서의 남성과 돌봄 노동자로서의 여성이라는 근대적 분업체계를 강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결혼의 위기에 봉착한 20세기에 들어 낭만적 사랑의 친밀성이 더 이상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주목하며, 친밀성을 기반으로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⁸⁾

기든스가 주창한 ‘친밀성의 구조변동론’은 20세기의 로맨스와 결혼의 위기, 그리고 현대적 사랑의 상관성을 고찰하는 섬웨이에게 로맨스에 대한 기존의 관념적 장벽에서 벗어나 보다 열린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즉, 12세기 프랑스에서 발생하여 19세기까지 유럽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독특한 사랑방식으로 존재해왔던 로맨스가 20세기에 미국으로 건너와 현대적 사랑으로 변동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던 섬웨이에게 로맨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안겨준 것이다.⁹⁾

8)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황정미 옮김, 새물결, 2003, 91-112쪽.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섬웨이는 기든스의 한계를 간파하게 됐다. 즉 친밀성과 사랑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족체계가 흔들리고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사랑과 결혼에 대한 관념이 급격하게 달라진 여파로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¹⁰⁾

섬웨이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끌어들었다. 루만은 기든스와 달리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소통매체라 주장하며, 사랑을 개인 간의 감정이나 감정이 반영되는 방식이 아닌 소통의 상징적인 담론 혹은 코드로 다루었다. 루만은 이런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봉건적인 신분제 중심의 계층적 사회로부터 자본주의의 기능적 사회로 분화되는 근대화과정에서 사회적 억압과 제약이 사라지고 두 사람만의 관계가 가능해진 사회체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¹¹⁾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화 과정이 촉진되고 과거의 사회적 관계가 급속히 해체되면서 결혼의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거나 사적인 선택으로 축소됐고, 이로 인해 더 이상 근대적인 낭만적 사랑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회변화가 초래됐다고 진단했던 것이다.¹²⁾

이처럼 섬웨이는 푸코와 기든스 그리고 루만의 이론에 의거하여, 천생연분과의 운명적 만남을 추구하는 로맨스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9)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3-6.

10)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11-16.

11)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4-6.

12) 니콜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옮김, 새물결, 2009, 27-56쪽, 229-258쪽 참조.

제외시켜왔던 전통적인 로맨스 관념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로맨스 담론과 친밀성담론이 교차하는 20세기의 독특한 ‘현대적 사랑’의 지형을 파악하고자 했다. 섬웨이가 이런 목적을 설정한 배경에는 ‘사랑은 역사에 따라 변천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행복한 사랑에는 역사가 없다’고 설파했던 드니 드 루즈몽의 역설이 작용했다.¹³⁾

이 역설의 파급력은 매우 커서, 기든스와 루만에 영향을 미쳐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결혼제도가 변하고 사랑방식이 변천한다는 새로운 학설로 발전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인 차원의 치유적 가치와 인류보편적인 정신사적 가치를 지닌 사랑이 중세 로맨스에서부터 현대 로맨스에 이르기까지 영속돼왔다는 로맨스이론을 탄생시켰다. 즉, 중세에 탄생한 로맨스라는 이름의 사랑방식(romance)은 역사와 시대가 달라지더라도 약간의 변용과 변주를 거치면서 낭만적 사랑이라는 확장된 서사(the romance)로 지속됐다는 로맨스 관념을 강화했던 것이다.¹⁴⁾

기든스와 루만의 이론을 원용한 섬웨이는 전자를 수용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비판적 거리를 취했다. 즉, 후자의 관점은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과 정념을 역사와 시대를 뛰어넘는 인간보편적인 사랑방식으로 고착화시킨 로맨스(romance)의 관념과 한 시대의 특정 로맨스 장르(the romance) 사이의 순환구조에 갇힌 텍스트 중심주의의 원조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역사학자와 문화연구자들의 문헌연구를 참조하여 각 시대별 문학작품과 결혼 매뉴얼, 당대인들의 일기와 편지

13) 이 역설은 루즈몽의 역작으로 손꼽히는 『서구문명과 사랑』(정장진 옮김, 한국문화사, 2013)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신화를 중심으로 사랑의 정념과 결혼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중세 로맨스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800년의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변주된다는 점을 밝힌 핵심 내용이다. 이 책은 1939년에 처음 발간됐고, 1956년과 1972년에 개정·증보판으로 출간됐다.

14)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11-17.

등의 사료를 근거로 삼아 로맨스담론의 구조변동에 주목했다.

이처럼 셜워이는 20세기의 ‘현대적 사랑’의 전개과정과 존재양상을 살 펴보기 위해 푸코와 기든스, 루만 등을 원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연구 방법론을 구축함으로써,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성과를 얻었다.

첫째, 역사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동시대의 사회적 관행으로 형성된 사랑방식과 결혼제도가 로맨스의 이념을 형성한다는 유물론적 관 점을, 로맨스 텍스트분석에 접목시켜 더 큰 사회적 조건에서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을 유기적으로 추적했다. 이로써 사랑과 결혼 사이의 연관성에 밀착된 로맨스장르의 사서문법이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제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왔 던 전통적인 로맨스이론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이뤘다.

둘째, 이 연장선상에서 셜워이는 1980년대 여성연구자들의 할리퀸로 맨스에 대한 논쟁을 잠재웠다. 이 논쟁은 할리퀸로맨스가 과연 ‘가부장 적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일탈과 휴식을 얻으려는 여성독자들에게 보상 적 교환을 충족시키는 유토피아적 판타지인가, 아니면 ‘만족스럽지 못한 가부장적 현실에 대한 강한 항의를 담보한 보복을 품은 사랑의 판타 지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페미니즘적인 로맨스논쟁이었다.¹⁵⁾ 이 논쟁 에 대해 여성문화연구자 리타 펠스키는 ‘미학적인 경험에 담겨진 감정과 쾌락의 의미를 단일한 잣대에 맞춰 즉자적으로 반자성적인 감상을 감정 과잉으로 환치하거나 비판하는 등의 경직된 이분법적 논쟁’이라고 혹평 했다.¹⁶⁾

그러나 셜워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역시 특정 로맨스 텍스트와 페미

15) 이정옥, 『로맨스, 여성, 가부장제의 함수관계에 대한 독자반응비평: 제니스 A. 레드웨 이의 『로맨스 읽기: 여성, 가부장제와 대중문학』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5 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9, 371-375쪽.

16) 리타 펠스키,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이은경 옮김, 여이연, 2010, 94-95쪽.

니즘 이데올로기의 순환구조에 갇힌 한계를 드러낸다. 섬웨이는 이와 같이 로맨스에 대한 기존의 관점이나 교의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결혼의 위기가 불러온 20세기의 사회적 조건에서 사랑의 방식과 로맨스와 친밀성의 담론과의 상관성을 고찰함으로써 로맨스연구와 친밀성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다.

셋째, 로맨스담론과 친밀성담론의 급격한 구조변동의 과정이 20세기의 영화와 소설, 조언서와 매뉴얼 등과 같은 문화텍스트로 구현된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조감한 성과를 이뤘다. 이를 위해 별개의 학문 영역이었던 로맨스나 친밀성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담론연구와 텍스트 중심의 문학연구를 결합시킨 새로운 연구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섬웨이는 푸코와 기든스, 루만 등의 사회학 이론을 원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연구방법론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맨스와 친밀성을 담론으로 규정하면서도 주체가 적극적으로 담론을 생산하기보다 사회변화에 반응하는 것처럼 분석함으로써 푸코 이전의 이념적 모델로 환원한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¹⁷⁾ 이런 비판은 주체를 역사와 사회의 특수한 담론에 의해 생산되는 구성물로 본 푸코나 기든스와 전혀 결이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결합한 점에서 비롯됐다.

섬웨이는 그 이전까지 사회학에서 인식주체로 여겨왔던 인간을 배제한 채 사회를 작동하는 소통매체가 사랑의 의미론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 주장했던 루만을 끌어들여, 자본주의의 발달과 결혼의 위기에 직면한 20세기의 사랑이라는 의미론의 변동에 주목함으로써 로맨스와 친밀성의 담론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교차하는 사회체계의 변화를 포착

17) John C. Supurlock, "Reviewed Work(s):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by David R. Shumway",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39 No.1, 2005, pp.287-288.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결이 다른 이론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균열의 지점을 정치하게 봉합하지 못했다.

3.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의 공존과 교차

20세기 초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는 전례 없는 결혼의 위기에 봉착했다. 대부분의 문화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발달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정치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참정권운동이 확대되면서 가부장적 결혼제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렸다는 원인 진단에 관심을 집중했다.¹⁸⁾ 그러나 대중문화연구자이자 문학연구자인 셜웨이는, 20세기 초에 일어난 결혼의 위기로 인해 대략 천년 동안 유지돼오던 로맨스담론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친밀성담론이 새롭게 대두된 현상에 주목했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해체되고 결혼의 사회적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결혼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부장적인 낭만적 사랑의 로맨스 관념이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셜웨이는 로맨스와 친밀성담론의 구조변동 과정을 다음 세 단계로 정리했다.

첫 번째 단계인 중세와 근대 초기에는, 사랑이 결혼제도 바깥에서 불륜 차원으로 이뤄졌던 터라 ‘사랑과 결혼은 양립할 수 없다’는 담론이 우세했다. 긍정풍 사랑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사랑을 이상화했던 기사도로맨스는 로맨스담론이 등장하는 조건 형성에

18) 스테파니 쿤츠, 『진화하는 결혼』, 김승욱 옮김, 작가정신, 2009, 338-371쪽; 사라 에번스, 『자유를 위한 탄생: 미국 여성의 역사』, 조지형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228-261쪽.

기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17세기부터 19세기에는, 낭만적 사랑과 결혼을 결합한 동반적 결혼(companionate marriage)이 확산되면서 ‘천생연분의 운명적 배필과 평생 함께 한다’는 로맨스담론이 등장했다. 이 시기에 유행한 로맨스문학은 구애와 결혼의 관행을 보편화시켰지만, 결혼을 전제한 정숙한 사랑이 주를 이루고 불륜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더라도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친밀성은 성관계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자 결혼을 전제로 한 사사로운 감정적 교감을 의미했다.

세 번째 단계인 20세기에는, 로맨스가 약화되고 깊은 소통과 우정을 나누는 친밀성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결혼의 위기가 증폭되고 사회적 소외감이 증대됨에 따라 친밀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던 사회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⁹⁾

이와 같은 로맨스와 친밀성의 단계별 특성을 토대로, 섬웨이는 로맨스담론과 친밀성담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즉, 로맨스담론은 중세와 근대 초기 사랑과 결혼의 연관성을 지배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이었으며, 전통적으로 운명적인 사랑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가정해왔다. 그러나 19세기의 로맨스소설(romantic novel)에서 여성의 성적 자유나 배우자를 찾기 위한 권리는 ‘평생 함께 할 남자’의 선택에 국한됐다. 이에 따라 로맨스는 두 사람의 결합을 방해하는 삼각관계의 수난과정에 초점이 맞춰졌고, 초월적 행복을 암시하는 동화같은 결혼으로 끝을 맺는 서사형식을 고수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섬웨이는 20세기에 새롭게 대두된 친밀성담론에 대해 ‘그간 로맨스가 말하지

19)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15-21, 63-77.

않았던 결혼에 대한 새로운 기대의 표현이자 결혼의 위기에 대한 시대적 반응'으로 해석했다.²⁰⁾

섬웨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20세기 현대적 사랑의 존재지형을 조감하기 위해 영화와 소설 등의 문화텍스트에서 로맨스와 친밀성의 담론이 구현되는 서사방식을 각각 '사랑이야기(love story)'와 '관계이야기(relationship story)'로 명명했다. 즉, 사랑이야기는 결혼의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운명적인 짝을 만나는 모험과 강렬한 연애감정에 사로잡히는 로맨스 서사를 추구한다. 또한 연애에 돌입한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을 욕망하면서도, 여성의 유일한 목표는 남편을 선택하는 자유와 모험에 머물러 있거나 결혼으로 끝을 맺더라도 스토리의 대부분은 연인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삼각관계의 갈등구조에 초점 맞춰진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관계이야기는 결혼이 성사되기 어렵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남녀 사이에 소통과 만남의 과정을 다룬다. 따라서 사랑이야기가 로맨스의 신비감이나 사랑에 헌신하는 환상을 다룬 서사로 변주됐던 반면, 관계이야기는 사사로운 감정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둔다.²¹⁾

정리하면, 로맨스는 운명과도 같은 짝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마침내 결혼에 도달하는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사랑의 이야기다. 중세의 기사도 로맨스에서 유래한 로맨스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만나 열정과 정념에 사로잡히는 운명적 이성애를 전제하는 사랑에 대한 환상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낭만적 사랑의 로맨스는 여성에게 헌신과 복종을 요구하는 남성 중심적인 사랑의 서사를 지향할 뿐 아니라, 19세기 로맨스소설이 정착되면서 운명적 사랑으로

20)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15-19, 25-45.

21)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20-27.

시작해 동화 같은 결혼으로 끝을 맺는 사랑의 서사구조를 고수한다. 이에 비해 결혼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로맨스의 대안으로 등장한 친밀성은 두 사람 사이에 지적·신체적·정서적인 면에서 매우 밀착된 친교를 통해 발현되는, 자아 경험의 내밀한 변화에 맞춰진다. 그러므로 친밀성은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에 바탕을 둔 지속적이고 평등한 관계의 서사를 추구한다.

로맨스의 개념은 기든스나 루만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전통적인 로맨스담론을 대체하고 변형시킨 친밀성의 개념은 썬웨이를 통해 새롭게 정립됐다. 무엇보다 로맨스담론과 친밀성담론이 텍스트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을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라는 서사구조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맨스의 시대에서 친밀성의 시대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20세기 문화텍스트의 존재지형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문화연구 및 문학연구에 미친 파급력이 매우 크다.

나아가 썬웨이는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라는 대비적인 구도를 토대로, 20세기의 영화와 소설 등과 같은 문화텍스트의 존재지형을 1960년대 이전과 이후의 두 단계로 정리했다. 즉, 20세기 초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가 공존했던 시기와, 1960년대 이후 사랑이야기에 비해 관계이야기가 압도적으로 증가한 교차의 시기이다. 두 단계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광범위하게 분석했지만, 지면상의 이유로 큰 줄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20세기 초 관계이야기가 대두된 원인을 대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데이트의 탄생으로 꼽았다. 즉, 도시가 주는 익명성과 상업성 속에서 새로운 연애제도인 데이트가 등장하면서 데이트코스의 선정이나 데이트에서 갖춰야 할 에티켓, 상대방을 사로잡는 매너 등을 코치하는 조언서와 매뉴얼이 쏟아졌다. 당시 심리치료사

와 정신분석자들은 결혼과 연애에서 성공하기 위해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처신하는 연애규칙을 제시했다.²²⁾ 이 자본주의적 연애제도의 탄생을 계기로 당시 대대적으로 유행했던 조언서와 매뉴얼 등의 문화텍스트들은 ‘결혼의 로맨스화’ 전략을 내세운 사랑이야기를 추구하면서도 관계형성에 필요한 디테일한 행동지침의 측면에서 관계이야기를 추구하는 이중성을 지녔다고 평가했다.²³⁾

이런 맥락에서 셉웨이는 1930년대의 스크루볼 코미디에 대해 사랑이야기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처음으로 관계이야기를 선보인 영화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했다. 이미 결혼한 부부 혹은 결혼을 앞둔 남녀주인공의 관계이야기, 즉 두 사람 사이에 지적·신체적·정서적인 면에서 밀착된 친교를 통해 발현되는 자아 경험의 내밀한 변화에 초점 맞추면서도 삼각관계와 구애, 간통 등과 같은 사랑이야기의 요소를 새롭게 결합하여 결혼의 위기를 정면으로 다뤘기 때문이다. 물론 여자주인공의 선택은 여전히 ‘한 남자와의 결혼생활을 평생 유지할 것인가’ 혹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것인가’ 중 하나를 선택하지만, 적어도 왜 남편이나 전 애인을 다시 선택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진다는 점에서 결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로맨스의 사랑이야기와는 현격하게 다르다고 강조했다.²⁴⁾

대표적인 예로 <어느 날 밤에 생긴 일>(1934)은 연애결혼을 용인하지 않는 강압적인 아버지에 반발하여 가출한 대부호의 딸이 플레이보이적

22) 베스 L. 베일리, 『데이트의 탄생: 자본주의적 연애제도』, 백준걸 옮김, 엘피, 2015, 219-256쪽. (이 원전은 1988년에 출간되어 셉웨이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23)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46-57.

24)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58, pp.64-72.

인 신문기자와 도망치는 과정을 다룬 스크루볼 코미디 영화이다. 계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장이 강하고 솔직하며 사회적 제약에 개의치 않는 두 사람은 파란만장한 해프닝을 거쳐 마침내 결혼 약속으로 끝을 맺는다.²⁵⁾ 이처럼 스크루볼 코미디는 ‘결혼의 낭만화’와 ‘사랑의 이상화’를 추구했던 당시 할리우드 로맨스와 달리 가부장적 결혼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소통과 우정을 다룬 관계이야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셉웨이는 스크루볼 코미디 역시 192,30년대의 조언서나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사랑이야기에 관계이야기가 혼합된 장르로 규정했다. 조언서와 매뉴얼에 비하면 구애과정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을 코믹한 논쟁으로 부각시켜 여성을 독립적이고 존재감 있는 인물로 조명한 점에서 관계이야기에 가깝지만, 여전히 남성의 지배력이 강하고 결혼으로 끝을 맺은 당시 할리우드 로맨스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²⁶⁾

이처럼 20세기 초반 관계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가 공존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일부일처제의 결혼관으로 회귀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희망과 승리로 승화시킨 사랑이야기가 우세해졌다. 그 원인에 대해 셉웨이는 미국이 2차 대전에 직접적으로 참전하게 되면서 이혼이나 결별이 증가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사랑과 결혼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회귀한 사회분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영화이자 대표적인 할리우드 고전로맨스로 손꼽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와 <카사블랑카>(1942)를 전쟁이라는 역사적 무게로 인한 사랑의 슬픔과 결별을 로맨스의 승리로 결합시킨 영화미학이 돋보인 작품

25) 토머스 샤프, 『할리우드 장르: 내러티브 구조와 스튜디오 시스템』, 한창호·허문영 옮김, 컬처북, 2014, 294-300쪽 참조.

26)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58-72.

이라 평했다.

〈카사블랑카〉에서 릭은 표면적으로 결혼 관념에 따른 이별의 슬픔을 감수하는 냉소적인 개인주의자로 묘사되지만, 실상은 ‘파리’로 상징되는 결혼 밖의 사랑을 간직한 감상주의자이다. 미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랑하는 일사와 그녀의 남편 라즐로(반나치주의자)에게 양보함으로써, 릭은 외도를 미화하는 역설을 통해 남성의 권위를 획득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낭만적 사랑의 로맨스를 지킨 영웅으로서 영화사에서 길이 남을 남자주인공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의 관점에서 말하고 여성 관객에게 어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은 전쟁으로 인해 강인하지만 비극적인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그녀는 표면적으로 사랑이야기에 충실한 여성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결혼제도에서 벗어나 애슬리를 향한 낭만적 사랑을 꿈꾸거나 낭만적 사랑에 반하는 래트와의 결혼 등 여러 겹의 삼각관계가 중첩되면서 점차 불행의 질곡으로 향한다. 그러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결말처럼 스칼렛은 저항적인 여성영웅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²⁷⁾

정리하면, 이와 같이 릭과 스칼렛이 할리우드로맨스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부상했던 이유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을 배경으로 ‘낭만적 사랑은 결혼 외부에서 번성한다’는 전통적인 로맨스담론에 ‘이별을 하더라도 사랑은 영원히 이어 간다’는 친밀성의 관계이야기를 접목시켜 사랑에 대해 새롭게 해석한 할리우드 고전로맨스의 서사문법을 창조한 데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맨스담론에서 친밀성담론으로 전환되는

27)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78-93.

20세기 전반은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가 공존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성혁명과 2세대 페미니즘이 부상하면서 여성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에 따라 구애와 결혼, 간통을 미화하는 근대적인 로맨스담론의 사랑이야기가 현저히 약화되고 소통과 우정 등의 감정에 초점을 둔 관계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로맨스의 대안으로 등장한 친밀성은 두 사람 사이에 지적·신체적·정서적인 면에서 밀착된 친교를 통해 발현되는 자아 경험의 내밀한 변화에 맞춰진다. 그러므로 친밀성은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관계이야기로 구현된다는 것이다. 섬웨이는 이런 점에 입각해서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친밀성담론이 슬픈 이별이나 또 다른 관계의 가능성과 섹스가 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관계이야기로 구현됐다고 분석하고, 그 예에 해당하는 문학텍스트를 크게 관계영화와 결혼소설로 분류했다.²⁸⁾

먼저, 관계영화의 대표적인 예로 <애니홀>(1977)과 <맨하탄>(1979)을 손꼽았다. 특히 이 두 영화의 감독이자 주인공인 우디 앨런이 자신을 비롯한 파트너의 감정과 행동, 관계패턴 등을 성찰한다거나 관객을 향해 묻고 답하는 문답식 대화, 인물간의 대화와 토론, 심리치료와 코멘트 등을 통해 사랑과 감정이 작동하는 심층구조를 조명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애니홀>에서 40대의 이혼남 앨비는, 아리따운 애니와의 관계가 어긋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 부인 엘리슨과 애니를 비교하며 사랑과 섹스, 그리고 관계 등에 관한 자신의 태도와 가치관을 성찰한다. 앨비는 똑똑하고 열정적인 엘리슨과 섹시하고 아름다운 애니가 자신에

28)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153-159.

게 충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 불만을 갖지만, “고립된 섬, 뉴욕처럼 갇혀 있는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애니의 결별선언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이에 비해 <맨하탄>에서 중년의 아이작은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 평론가이자 소설가인 메리와 청순한 고등학생 트레이시와의 더블데이트, 메리를 사이에 둔 친구와의 삼각관계 등 다각적 관계의 대비를 통해 사랑과 결혼에 대한 관념과 도덕성에 대해 성찰한다. 17살 트레이시를 통해 로맨스에 대한 환상을 충족하는 동시에 윤리적인 변민에 사로잡히고, 친구에게 메리를 소개하여 사랑과 우정을 모두 잃고 난 후 자신의 자유분방한 연애관을 후회한다. 게다가 두 번째 부인 질이 자신에 대해 ‘진보주의자를 자처하지만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에 빠진 남성우월주의자’라 혹평하는 책을 출판하자, 아이작은 비로소 모든 원인이 자만심과 오만에 찬 자신에게 있음을 직시하게 된다.²⁹⁾

두 영화에서 주인공이자 내레이터인 앨비와 아이작은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을 추구하는 로맨스 관념에 사로잡힌 채 사랑과 관계에 대해 성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셜웨이가 이처럼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의 중첩된 두 영화를 ‘자기성찰의 영화’로 평가한 이유는, 자신의 모순에 대해 자의식적인 변명을 늘어놓는 주인공에 대해 감독인 우디 앨런의 관점에서 메타적으로 비판하는 이중구조에 있다.

즉, <애니홀>에서 앨비는 섹시하고 아름답지만 지적이지 않은 애니에게 대학수업 청강과 독서를 권하는 등 지적 성장을 권유하면서도 점점 발전하며 성장하는 애니가 자신의 한계를 지적하며 떠나자 배신감에 사

29)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pp.159-161, 163-167, 175-178.

로잡힌다. 그러나 배신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힌 코미디 작가인 앨비는 영화의 말미에서 자신이 창작한 단막극을 보여주며 자기모순을 합리화한다. 즉, 이별을 선언한 여자가 오히려 떠나려는 남자를 다시 붙잡으며 사랑을 고백한다는 내용의 단막극을 보여주며 관객을 향해 “어찌겠어요? 영화란 이런 거죠”라는 자의식적인 변명을 추가한다. 이 영화에 대해 영화감독 우디 앨런이 ‘여성의 관점에서 관계를 성찰한 영화’라 언급했던 점³⁰⁾을 환기하면, 친밀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로맨스담론에 침윤되어 있는 남성의 시선을 문제 삼고 있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또한 <맨하탄>에서도 헌신과 사랑의 찬사를 바치는 트레이시를 떠나보낸 자신의 위선적 행동을 후회하면서도 스스로를 <카사블랑카>의 릭과 같은 로맨스 영웅으로 치부하는 아이작의 이중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이 섬웨이가 분석한 우디 앨런의 관계영화는 표면적으로 운명적인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는 결혼이나 사랑에 헌신하고 복종하는 낭만적 사랑의 환상에서 벗어나 연애와 결혼에 대한 관습적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개방적인 섹스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관계이야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애니홀>의 말미에 제시된 단막극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듯, 낭만적 사랑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남성들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취한다는 점에서 관계이야기에 스며들어 있는 사랑이야기의 공존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섬웨이는 관계이야기의 두 번째 사례로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한 배신과 위기를 둘러싸고 부부 사이의 깊은 관계를 파헤치는 결혼소설을 주목했다. 결혼소설은 인물의 목소리나 전지적 서술자를 통해 결혼생활의 깊은 속사정이나 부부 간의 내밀한 관계를 다루는 소설의 장점을 활용하여, 결혼의 위기와 부부 간의 관계를 새롭게 성찰하는 계

30) 스티그 비에르크만, 『우디가 말하는 앨런』, 이남 옮김, 한나래, 2006, 107-130쪽.

기를 제공하는 장점을 지닌다.

결혼소설의 예로 존 업다이크의 〈부부들〉(1962)과 〈결혼해주세요〉(1983)를 분석했다. 풍요로운 교외지역에서 간통과 외도로 얽힌 10쌍의 부부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과 화해를 다룬 〈부부들〉이 1960년대에 급격히 증가한 결혼 위기의 풍속도를 묘사한 소설이라면, 결혼의 맥락에서 불륜을 다룬 〈결혼해주세요〉는 연인들의 관계보다 배우자들의 반응을 비중 있게 다룬 소설이라 평가했다. 전자에서 피에트가 이웃집 여인 폭시와 외도를 즐기면서도 아내 안제라를 더욱 사랑하는가 하면, 또 다른 연인 조르겐을 사랑하면서도 안젤라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모험으로서의 간통감(sense of adultery)’을 즐기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후자에서는 제리가 옆집 여자 샬리와외의 간통을 계기로 아내 루스와 부부로서의 감정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친밀한 소통을 나누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안락한 가정과 달콤하고 섹시한 연인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 실현불가능하다’는 자기 반성적인 성찰에 도달한 점을 강조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섬웨이는 결혼소설을 로맨스에 관한 소설이자 벗어날 수 없는 새장과의 같은 결혼생활을 가꿔나갈 방안에 대해 성찰하는 관계이야기로 규정했다.³¹⁾

실존주의적 문학세계를 추구하는 업다이크의 소설은 전반적으로 개인의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해방을 꿈꾸며 방황하는 인물을 통해 가정과 사회라는 공동체적 가치와 근본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딜레마를 다뤘다는 평을 받고 있다.³²⁾ 이에 따르면, 결혼소설로 구분한 이 두 작품 역시 관계를 통해 상실된 사랑과 분열된 가정, 결혼의

31)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188-193.

32) 변종민, 『존 업다이크의 실존주의 문학세계』, 태학사, 2004, 135-167쪽; 한영식, 『John Updike의 Robbit 시리즈에 나타난 인간의 실존 양상』, 한국학술정보, 2006, 75-94쪽.

의미에 대한 성찰소설에 해당한다. 섬웨이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실패한 결혼을 다뤘지만 사랑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 관계의 미래를 탐색하는 희망적인 신호'이자 '사랑하는 분리에 대해 탐구하는 결혼소설로 평가했다.³³⁾ 즉, 결혼소설이 결혼에 대한 의무와 연애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자기반성적인 모험을 단행하는 관계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섬웨이가 분석한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는 관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있다. 즉, 로맨스의 사랑이야기는 간통이나 불륜 등으로 이어지는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연애와 결혼의 성사 여부를 중핵으로 삼는 서사문법을 채택한다. 따라서 독자들은 연애와 결혼에 성공하는 주인공에 동일시하고 배타적인 사랑의 쟁취과정에 몰입하게 된다. 그러나 친밀성의 관계이야기는 두 사람의 관계와 사랑에 대한 세밀한 감정변화의 추이를 중시하는 서사문법을 지향한다.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심리치료의 사례를 지켜보듯 이를 통해 자신의 관계와 사랑, 감정 등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³⁴⁾

이처럼 섬웨이는 로맨스담론의 구조변동과 친밀성담론의 급격한 대두 원인을 20세기에 진행된 결혼의 위기에서 찾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맨스담론의 사랑이야기와 친밀성담론의 관계이야기가 공존하고 교차하는 지점에 주목했다. 이런 급진적 변화는 일차적으로 20세기 초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작됐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20세기 후반 결혼과 가족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가 급속하게 해체되는 2차 개인화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2차 개인화과정과

33)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196-198.

34) Eva Illuz,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Modern Fiction Studies*, Vol.51 No.1, 2005 참조.

현대적 사랑의 함수관계에 대해 4장에서 본격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4. 개인화과정의 양면성과 ‘현대적 사랑’ 연구의 의의와 한계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셜웨이는 로맨스담론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친밀성담론이 새롭게 대두한 20세기의 사랑방식과 그 특성을 ‘현대적 사랑’으로 통칭했다. 아울러 로맨스담론과 친밀성담론이 문화텍스트로 구현된 서사를 각각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로 이분화하고, 20세기의 소설과 영화를 비롯한 조언서와 심리치료 매뉴얼 등에서 두 가지 서사가 공존하고 교차하는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런 점에서 셜웨이는 기든스가 주창한 친밀성의 구조변동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일루즈는, 기든스가 20세기에 급격하게 부상한 친밀성이 로맨스에 대한 전통적인 담론을 대체·변형시켰다는 혁신적인 주장을 펼쳤음에도 역사와 사회적 맥락에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채 모호한 ‘진흙탕’의 상태로 남겨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셜웨이는 20세기 초반부터 후반까지 로맨스에서 친밀성으로의 변동과정을 광범위한 문화텍스트의 전개양상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고찰함으로써 기든스의 한계를 능가했다며 높이 평가했다.³⁵⁾

이런 성과는 셜웨이가 기든스의 친밀성의 구조변동론과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연구방법론을 구축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즉, 루만은 낭만적 사랑이 애초 결혼 밖의 사랑에서 출발했으므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의미론이 형성됐던 반면, 친밀성

35) Eva Illuz,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Modern Fiction Studies*, Vol.51 No.1, 2005 참조.

은 두 사람만의 밀도 깊은 감정을 교류하지만 섹슈얼리티로 환원될 수 없는 관계로 개인들 간의 상호침투가 이루어지는 친밀관계의 의미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섬웨이의 친밀성 관점에 기여했다. 더욱이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개인화된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두 사람의 인격적 관계를 규제할 공동체적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사랑은 선택의 문제로 전환됐다는 관점과 사랑이 개인의 선택으로 전환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친밀한 감정밖에 없게 됐다는 루만의 주장은 친밀성의 관계이야기 분석에 큰 영향을 미쳤다.³⁶⁾

흥미롭게도 이처럼 사회학자들의 이론이 섬웨이의 연구방법론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변한 사랑의 풍속도에 대한 접근 방식은 매우 달랐다. 즉, 사회학자들이 20세기 사랑의 풍속도가 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현상을 진단하는데 집중했던 반면, 섬웨이는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이란 거시적 맥락에서 사랑과 결혼, 그리고 로맨스와 친밀성의 함수관계를 기반으로 20세기 사랑방식의 존재지형을 조감했다.

그런데 섬웨이가 로맨스에 대한 관념을 로맨스 장르에 적용하는 순환 구조에 갇혀 있는 그간의 로맨스연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든스와 루만을 비롯한 사회학적 이론을 원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20세기에 새롭게 부상한 사랑풍속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진단을 내놓았던 사회학자들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든스는 능동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합류적 사랑’이

36) 니콜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옮김, 새물결, 2009, 229-258쪽; 정성훈, 「사랑 이후 혹은 현대 이후의 힘겨움—친밀관계와 현대사회에 대한 루만의 연구로부터」, 『문학과 사회』 24(4), 문학과지성사, 2011, 245-251쪽.

나 자유롭게 부담 없이 섹스를 즐기는 ‘조형적 사랑’을 언급했다.³⁷⁾ 크리스티안 솔트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사랑의 열정과 친밀한 관계는 추구하되 현실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전략적 낭만을 통한 ‘실용적 사랑’이라 명명했으며,³⁸⁾ 올리히 벡-벡은 감정적인 결속은 지키되 지리상 멀리 거주하거나 이질적인 문화권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세계가족의 확산현상을 ‘장거리 사랑’이라 칭했다.³⁹⁾ 뿐만 아니라 에바 일루즈는 낭만적 사랑이 소비자본주의에 포섭된 생활세계를 ‘낭만적 유토피아’라 명명하며, 순수한 사랑의 영역이었던 로맨스마저 화폐가치로 환산됨에 따라 ‘로맨스의 상품화’와 ‘상품의 낭만화’가 강화되는 등 감정자본주의가 사랑을 압도한다고 진단했다.⁴⁰⁾ 또한 지그문트 바우만은 소유욕과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유동적이고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액체사랑’이 넘쳐나는 시대라 비판했다.⁴¹⁾

아울러 사회학자들은 이처럼 사랑의 풍속도를 변화시킨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2차 개인화과정에서 찾았다. 개인화를 개인들의 태도 변화를 초래한 거시사회화적인 현상으로 설명한 올리히 벡에 따르면, 개인화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됐다. 1차 개인화과정은 근대 초기부터 19세기 까지 시민권과 정치적 기본권을 획득한 부르주아 남성들 중심으로 진행됐던 반면, 2차 개인화과정은 20세기 후반인 196,70년대의 성혁명과 자

37)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황정미 옮김, 새물결, 2003, 91-112쪽.

38) 크리스티안 솔트, 『낭만적이고 전략적인 사랑의 코드』, 장혜경 옮김, 푸른숲, 2005, 272-280쪽.

39) 올리히 벡·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 『장거리 사랑』, 이재원·홍찬숙 옮김, 새물결, 2012, 19-83쪽.

40) 에바 일루즈, 『감정자본주의』, 김정아 옮김, 돌베개, 2010, 83-143쪽; 에바 일루즈,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박형신·권오현 옮김, 이학사, 2014, 55-140쪽.

41) 지그문트 바우만, 『리퀴드 러브: 사랑하지 않을 권리』, 권태우·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3, 103-146쪽.

본주의적 복지국가의 확산과정에서 진행됐다. 1차 개인화과정에서 정치적 자유를 획득한 개인 남성들은 가족 내 성역할 지위와 계급 지위, 국민국가의 시민 지위를 제도적으로 확보했다. 이에 비해 가족과 계급 영역에서 발생한 2차 개인화과정에서 가족은 더 이상 자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협상의 대상으로 변화됐다. 1차 개인화과정이 자발적으로 진행됐던 반면 2차 개인화과정은 사회구조적으로 강요된 것이므로, 개인들은 생애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계급 지위와 가족 지위의 파편화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차 개인화과정은 특히 여성에게 계급과 가족이 파편화되는 위험성과 동시에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으로부터 해방되는 양면성을 지닌다고 설파했다.⁴²⁾

한마디로, 사랑과 결혼을 결합시킨 낭만적 사랑의 로맨스담론이 약화되고 사랑이 개인의 선택으로 범주화되는 친밀성담론의 구조가 변동된 근본 원인은 2차 개인화과정의 위험성과 성역할규범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의 대비를 토대로 로맨스담론과 친밀성담론의 구조변동이 공존·교차하는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한 썬웨이의 분석틀 역시 2차 개인화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썬웨이는 19세기의 친밀성을 ‘결혼을 앞둔 남녀의 은밀하고 섹슈얼리티적인 감정관계로 정의한 반면, 20세기의 친밀성을 ‘결혼이 성사되기 어렵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남녀 사이에 우정과 소통으로 맺어진 감정관계로 규정했다.⁴³⁾ 이를 기반으로 20세기 초반부터 후반에 이르는

42) 올리히 벡 외,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한상진·심영희 편저, 새물결, 2010, 24-25쪽; 홍찬숙, 『개인화: 해방과 위험의 양면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31-42쪽.

43)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24-27.

광범위한 문화텍스트가 로맨스에서 친밀성으로 변동하는 과정에서 조직·유통되는 방식을 조명하고, 나아가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라는 구도에 따라 문화텍스트를 분석하고 해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루즈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섬웨이는 20세기의 사랑방식 전체를 단일하게 ‘현대적 사랑’으로 범주화함으로써, 로맨스담론의 사랑이야기가 후퇴하고 친밀성의 관계이야기가 부상한 20세기 초반과 후반의 문화텍스트의 존재지형의 대비적 조감에 주목했다.⁴⁴⁾ 그 결과 사랑과 결혼을 결합시킨 낭만적 사랑의 로맨스담론이 약화되고 사랑이 개인의 선택으로 범주화되는 친밀성담론의 구조변동이 일게 된 근본 원인이 2차 개인화과정의 위험성과 성역할 규범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천착하지 못했던 것이다. 기든스의 친밀성의 구조변동론에 대해 ‘거시적인 사회구조의 변동에 주목하지 못하고 단순히 개인의 측면에서 의식적인 선택이나 선호로부터 유래한 변화과정으로 파악했다’는 백의 비판을 떠올리면, 섬웨이의 이런 문제점은 기든스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다.⁴⁵⁾

이런 맥락에서 섬웨이의 『현대적 사랑』은 문화연구와 문학연구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차 개인화과정이 여성에게 위험과 동시에 해방을 안겨준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계급 지위와 가족 지위의 파편화가 진행되는 2차 개인화과정을 거치면서 ‘평생 한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낭만적 사랑과 운명적인 결혼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이혼이나 독신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44) Eva Illuz,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Modern Fiction Studies*, Vol.51 No.1, 2005, pp.243-246.

45) 올리히 백 외,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한상진·심영희 편저, 새물결, 2010, 24-25쪽.

이 등장하면서 ‘타자를 위한 삶’에서 ‘자신을 위한 삶’을 향한 여성들의 실존적 전환이 이루어졌다.⁴⁶⁾

이런 점에 착목하면, 결혼소설 『결혼해주세요』에 대한 분석에서 제리의 불륜 상대인 샬리와 제리의 부인 루스가 우정으로 연대하며 분열된 가족과 상실된 사랑에 대해 오랜 시간 기나긴 토론을 거쳐 ‘한 남자’가 아니라 남성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결혼이란 관념에 도달하는 여성들의 감정변화에 내포된 실존적 고뇌의 의미를 포착하지 못했다.⁴⁷⁾ 또한 〈해리가 샬리를 만났을 때〉(1989)에 대한 분석에서 ‘남자와 여자는 섹스가 방해되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다’는 해리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자신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연애와 결혼을 거부하며 12년 동안 해리와의 우정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던 샬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이 영화를 모호하게 ‘친밀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로맨스를 다룬 가장 로맨틱한 관계이야기’로 분류했던 것이다.⁴⁸⁾

또 하나, 셜워이는 로맨스가 상품화되는 후기자본주의사회에서 친밀성을 시장의 자본논리에 침윤되지 않은 영역으로 보는 낙관론적인 관점을 취했다. 현대사회를 낭만적 사랑이 소비자본주의에 포섭되고 로맨스의 상품화가 강화되는 감정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할 일루즈는, 오늘날 낭만적 사랑이 마치 사회질서의 경제적 전도와 공리주의적 가치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마저도 시장에 의해 틀지어진다고 진단했다. 표면적으로 낭만적 사랑이 자본주의적 여가에 편입된 상황에서 로맨스의 관행 역시 생산 영역의 가치와 대립되는 위반 의례를 포함하고

46) 홍찬숙, 『개인화: 해방과 위협의 양면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31-42쪽 참조.

47)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139-197.

48)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178-182.

개인적 자유를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적으로 모두 시장에 기초한다는 것이다.⁴⁹⁾

이런 관점에 비춰보면, 가족관계의 위기와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중첩된 1990년대에 들어 자본주의와 사적 감정의 상호침투가 일어나면서 감정을 자본으로 활용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에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불안이 증폭됐다. 이런 균열과 고통의 지점에서 역설적으로 대화와 설득의 심리와 관련된 다양한 조언서와 매뉴얼이 쏟아졌고,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이 결여된 연애시장에서 불안한 연애를 탐색하는 문화텍스트가 인기를 끌었다. 그럼에도 셜웨이는 연애와 결혼을 위한 지침서인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1992)나 〈프리티 우먼〉(1990)과 같은 로맨틱코미디의 상업적 성공에 대해, 연애와 사랑에 대한 냉소주의와 대립된 극단의 지점에 낭만적 사랑의 로맨스를 인간 보편적인 환상으로 여기는 보수적인 관념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이 연장선 상에서 ‘로맨스마져 화폐가치로 환산되는 로맨스의 상품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적으로 친밀성은 시장이 지배하지 않은 공간으로 남아 있다고 결론을 맺어 혹평을 받았다.⁵⁰⁾

이와 같이 친밀성을 ‘결혼이 성사되기 어렵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남녀 사이에 우정과 소통으로 맺어진 감정관계로 정의하며 ‘친밀성이 시장이 지배하지 않은 공간으로 남아있다고 보는 셜웨이의 관점에는

49) 예바 일루즈,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박형신·권오현 옮김, 이학사, 2014, 26-34쪽.

50)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220-222; Andrew Hoberek,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by David Shumway: The Wedding Complex: Forms of Belonging in Modern American Culture by Elizabeth Freeman”, *South Atlantic Review*, Vol.70, 2005, pp.161-165 참조.

친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폭력성에 대한 고려가 배제돼 있다. 더욱이 결론 부분에서 제시한 ‘친밀성담론의 출현은 친밀관계 뿐 아니라 젠더관계, 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고무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장밋빛 전망은, 1990년대에 〈적과의 동침〉(1991)과 같은 영화가 상영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과 같은 위험성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드러냈다.⁵¹⁾

이런 한계는 이 책이 20세기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의 시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2003년에 출판된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욕망과 관계에 기초한 협상이나 친밀성의 코드화 등 소통 관련서나 연구서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⁵²⁾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동향이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이 통용되지 않는 포스트모던시대에 상호침투로서의 소통이 중요해진 시대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후 급격하게 변화가 일면서 비로소 성별 분업적인 근대적 핵가족제도가 빠르게 와해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이후의 가족’이 등장함에 따라, 사랑과 결혼을 긴밀하게 연관 짓는 낭만적 사랑으로부터 탈주하거나 사랑을 매개로 한 친밀성이 강제와 폭력을 동반하는 친밀관계로 변질될 가능성을 인정하게 됐고 이에 대해 성찰하는 문화텍스트도 급증하는 추세로 돌아섰다.⁵³⁾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섬웨이가 규정한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라는 구도는 낭만적 사랑의 로맨스 서사문법에서 벗어나 두 사람 사이

51) David R. Shumway,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230-232.

52) 대표적으로 Keith Harvey & Celia Shalom, *Language and Desire: Encoding sex, romance and intimacy*, Routledge, 1997을 필두로 Nancy Yousef, *Romantic Intimac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Derek Layder, *Intimacy and Power: The Dynamics of Personal Relationships in Modern Society*, Palgrave Macmillan, 2009 등을 들 수 있다.

53) 정희진, 『아주 친밀한 폭력: 여성주의와 가정폭력』, 교양인, 2016 참조.

에 지적·신체적·정서적인 면에서 매우 밀착된 친교를 통해 발견되는 자아 경험을 중시하는 최근의 소설과 영화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준거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학연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소설과 드라마를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멀 피플』(2018)과 같이 로맨스의 사랑이야기 각본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세밀한 감정선을 따라 사랑과 우정을 넘나들며 금방이라도 단절될 듯 지속적으로 어렵게 이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서사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섬웨이가 정립한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과 20세기 현대적 사랑의 함수관계를 참조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들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를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친밀성의 관계이야기는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포스트모던시대에 친밀한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반응과 언어적 표식으로서의 대화 사이에 간극이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호침투로서의 소통이 중요해진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섬웨이가 정립한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의 서사문법은 오히려 최근 포스트모던적 사랑의 특성을 밝히는 데 매우 유효한 참조틀로 활용될 수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이빗 R. 섬웨이의 『현대적 사랑』은 결혼의 위기로 인해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이 일어난 20세기의 독특한 사랑방식을 문화텍스트의 존재지형을 살펴본 통합적인 연구서다. 이

연구서가 출간되기 전까지 사랑과 로맨스와 친밀성에 대한 연구는 텍스트분석 중심의 문학연구와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에 주목한 문화사회학 연구로 분화된 양상이었다. 그러나 섬웨이는 두 가지 연구방법론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연구방법론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로맨스와 친밀성의 담론이 텍스트로 구현된 서사를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로 규정한 다음 20세기 현대적 사랑의 지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결혼의 위기와 로맨스와 친밀성 담론의 구조변동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섬웨이가 구축한 연구방법론을 검토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20세기 현대적 사랑의 전개 양상을 조감한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살폈다.

2장에서는 결혼의 위기가 불러온 20세기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푸코의 담론 개념과 기든스의 친밀성의 구조변동론, 루만의 사회체계론을 결합하여 섬웨이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을 구축하는 과정을 고찰했다. 서로 결이 다른 이론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치밀하게 봉합하지 못한 점도 발견됐다. 그러나 그간 로맨스와 로맨스 텍스트의 순환구조에 갇혀 있던 로맨스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섬웨이의 연구방법론이 지닌 가치와 의의에 비하면, 더욱이 거시적인 담론 변화의 지형에서 결혼의 위기와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의 상관성을 밝혀낸 성과를 이룩했던 점에 비춰보면, 그런 문제점은 미미한 수준에 해당한다.

3장에서는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이 일어난 중세와 근대 초기, 17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의 세 단계를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20세기에 급격하게 일어난 로맨스담론과 친밀성담론의 구조변동의 특성을 살펴봤다. 아울러 로맨스와 친밀성의 담론이 소설과 영화, 조언서와 심리치료 매뉴얼 등의 문화텍스트로 구현된 서사를 각각 사랑이야기와 관계이

야기로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20세기 전반에 분포된 문화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검토했다.

섬웨이의 분석은 20세기 전반의 문화텍스트의 존재지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소 사랑이야기와 관계이야기라는 이분법적 도식에 얽매어 로맨스와 친밀성이 중첩된 측면 등을 정치하게 분석하지 못한 문제점도 드러나지만, 낭만적 사랑에 복속된 사랑이야기와 친밀한 두 사람의 내밀한 감정 선에 충실한 관계이야기를 대비적으로 정리한 점에서 높은 평가받을 정도로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4장에서는 결혼의 위기와 로맨스와 친밀성의 구조변동의 상관성을 고찰한 섬웨이의 연구가 기든스의 친밀성의 구조변동론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태로 남겨둔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에 대해 고찰했다. 그러나 20세기의 사랑을 ‘현대적 사랑’이란 하나의 단위로 통칭함으로써, 20세기 후반에 급격하게 변한 사랑의 풍속도를 포착하지 못한 문제점도 확인됐다. 이런 한계는 2차 개인화과정이 여성에게 안겨준 위협과 해방의 양면성을 도외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관계이야기에서 여성의 실존적인 고뇌와 복합적인 심리를 단순화한다거나 친밀성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으로 이어졌다.

20세기 후반 2차 개인화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했던 근대적 결혼제도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에 기초한 로맨스담론이 급격하게 와해됨에 따라 성차별적인 사랑이나 애욕을 넘어선 우정과 소통을 통해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친밀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더욱이 최근 친밀성에 대한 연구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 사랑과 우정의 네트워크인 친밀공동체나 문화적 삶의 양식인 건강한 친밀성과 공공성의 교차지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맥락에서 섬웨이의 『현대적 사랑: 로맨스, 친밀성, 그리고 결혼의 위기』는 그 선두에 서서 로맨스와 친밀성에 대한 연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선도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제 섬웨이의 선도적인 논의를 잇는 심도 있는 연구는 후속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Shumway, David R.,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2. 논문과 단행본

김미경, 『친밀성의 구조변동과 가족구조의 변화: 배우만의 문제의식과 루만의 인식을 통한 접근』, 『젠더와 문화』 제10권 제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7, 75-101쪽.

김봉률, 『이안 와트의 소설발생론과 장르 정치학』, 동인, 2007.

낸시 암스트롱, 『소설의 정치사: 섹슈얼리티, 젠더 소설』, 오봉희·이명호 옮김, 그린비, 2020.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옮김, 새물결, 2009.

드니 드 루즈몽, 『사랑과 서구 문명』, 정장진 옮김, 한국문화사, 2013.

리타 펠스키,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이은경 옮김, 여이연, 2010.

베스 L. 베일리, 『데이트의 탄생: 자본주의적 연애제도』, 백준걸 옮김, 알피, 2015.

변종민, 『존 업다이크의 실존주의 문학세계』, 태학사, 2004.

비비아나 A. 젤라이저, 『친밀성의 거래』,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옮김, 에코리브르, 2009.

사라 에번스, 『자유를 위한 탄생: 미국 여성의 역사』, 조지형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스테파니 쿤츠, 『진화하는 결혼』, 김승욱 옮김, 작가정신, 2009.

스티그 비에르크만, 『우디가 말하는 앨런』, 이남 옮김, 한나래, 2006.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황정미 옮김, 새물결, 2003.

에바 일루즈, 『감정자본주의』, 김정아 옮김, 돌베개, 2010.

_____,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박형신·권오현 옮김, 이학사, 2014.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 『장거리 사랑』, 이재원·홍찬숙 옮김, 새물결, 2012.

울리히 벡 외,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한상진·심영희 편저, 새물결, 2010.

- 이정옥, 『로맨스, 여성, 가부장제의 함수관계에 대한 독자반응비평: 제니스 A. 래드 웨이의 『로맨스 읽기: 여성, 가부장제와 대중문학』을 중심으로』, 『대중서사 연구』 제25권 제3호, 대중서사학회, 2019, 349-383쪽.
- _____, 『로맨스라는 환상: 사랑과 모험의 서사』, 문학과지성사, 2022.
- 정성훈, 『사랑 이후 혹은 현대 이후의 힘겨움—친밀관계와 현대사회에 대한 루만의 연구로부터』, 『문학과 사회』 제24권 제4호, 문학과지성사, 2011, 245-251쪽.
- 정희진, 『아주 친밀한 폭력: 여성주의와 가정폭력』, 교양인, 2016.
- 지그문트 바우만, 『리퀴드 러브: 사랑하지 않을 권리』, 권태우·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3.
- 질리안 비어, 『로망스』, 문우상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 크리스티안 솔트, 『낭만적이고 전략적인 사랑의 코드』, 장혜경 옮김, 푸른숲, 2005.
- 토머스 샤프, 『할리우드 장르: 내러티브 구조와 스튜디오 시스템』, 한창호·허문영 옮김, 컬처북, 2014.
- 한영식, 『John Updike의 Rabbit 시리즈에 나타난 인간의 실존 양상』, 한국학술정보, 2006.
- 홍찬숙, 『개인화: 해방과 위협의 양면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 Harvey, Keith & Celia Shalom, *Language and Desire: Encoding sex, romance and intima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
- Hoberek, Andrew,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by David Shumway: The Wedding Complex: Forms of Belonging in Modern American Culture by Elizabeth Freeman", *South Atlantic Review*, Vol.70, 2005, pp.161-165.
- Illuz, Eva,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Modern Fiction Studies*, Vol.51 No.1, 2005, pp.243-246.
- Layder, Derek, *Intimacy and Power: The Dynamics of Personal Relationships in Modern Society*, Palgrave Macmillan, 2009.
- Radway, Janice A.,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9.
- Sullivan, Karen, *The Danger of Romance: Truth, Fantasy, and Arthurian Fic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 Supurlock, John C., "Reviewed Work(s):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by David R. Shumway",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39 No.1, 2005, pp.287-288.
- Yousef, Nancy, *Romantic Intimac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ormation of Romance and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 Based on David R. Shumway's *Modern Love: Romance,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Lee, Jung-Oak(Sookmyung Women's University)

Focusing on David R. Shumway's *Modern Love* (2003), this paper examined developments of modern love in the 20th century based on correlations between transformation of romance and intimacy and the marriage crisis. His book is an overview of study that summarizes the topography of cultural texts on love and relationships in the 20th century based on a mixed dialectic method of romance research focusing on text analysis and theories of cultural sociology on the transformation of romance.

In order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 of romance and intimacy discourse in the 20th century caused by the marriage crisis, Shumway built his research method using sociology theories, such as Foucault, Giddens, and Luman. Based on this, the narrative method, in which romance and intimacy discourse was embodied in the text, was defined as a love story and a relationship story, respectively, and then a clear look at developments of modern love in the 20th century. When a dating system appeared in the early 20th century, relationship stories, such as dating manuals and screwball comedy, appeared, but love stories, such as Hollywood classic romances aimed at romantic love were the mainstream. On the other hand, in the wake of the women's movement and feminism in the 1960s and 1970s, relationship stories, such as relationship movies and marriage novels, increased overwhelmingly in the late 20th century. Despite an advantage of a clear summary of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is dichotomous analysis tends to simplify the reality of intimacy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by overlooking the risks and ambivalence of liberation of the second individualization process.

Now, amid the collapse of the modern marriage system and the emergence of

various types of families, the romance of romantic love has weakened, and the era of intimacy aimed at equal relationships has begun. Accordingly, research on intimacy is also expanding beyond a personal relationship to an intimate community or a crossing point between healthy intimacy and publicity. In this context, Shumway's research has value and significance in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study of romance and intimacy.

(Keywords: romance, intimacy, the marriage crisis, modern love, transformation of discourse, love story, relationship story, individualization process)

논문투고일 2022년 4월 30일

논문심사일 2022년 6월 7일

수정완료일 2022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5일